

자살의 윤리적 문제

이종원 (송실대학교 교수)

I. 들어가는 말

II. 한국사회의 높은 자살률

III. 자살의 원인

1. 자살의 개인적인 원인
2. 자살의 심리적 요인
3. 자살의 사회 구조적인 요인

IV. 자살에 대한 윤리적 판단

1. 자살찬성논변
2. 자살반대논변

V. 자살예방의 윤리

1. 생명 존엄성에 기초한 생명존중운동
2. 삶의 의미와 희망 제공
3. 공동체의 연대성 강화
4. 자살예방교육과 자살예방시스템 구축
5. 온전한 생명문화의 정립

VI. 나오는 말

• ABSTRACT •

Korea society's suicide ratio is the top of OECD nations. This high suicide ratio reveals a fundamental problem of our society. The prime cause of suicide is a result of economic crisis and a radical change of the structure of our society since 1998. So our society filled with a shadow of death instead of life and hope. It is evident that our society prevails to have a trend to neglect-life.

In this paper, I want to survey the prime cause of suicide and then to seek the solution and prevention of this suicide problem. Also I want to stress an importance of proper bio-culture and suggest establishing bio-culture.

Individual causes of suicide are a shocking accident, conflict, a lose of hope, a feeling of helplessness, painful torture, extreme property ect. Also an irrational socio-structural contradiction results in suicide. Committing suicide is not only an individual issue but also society's disaster and reveals failure of our society.

Suicide brings social damage and collapse of the family because they destroy their life themselves. Some support suicide base on the right of ownership of their life and respect for autonomy and the final exit of pain. But we should consider that life is given as a gift and duty. We should take notice the priority of the principle of non-maleficence over respect for autonomy.

Suicide damages themselves and badly affects their family and their community. So preventing suicide is the duty of a community and ethically moral. Above all, to prevent suicide from spreading the movement to respect life based on the dignity of life, and positive motivation for the meaning of life must precede and should recover real solidarity of communities. Also education of suicide prevention should go ahead and a suicide prevention system must be established.

These are the main roles of church for suicide prevention. First, the church recovers solidarity by establishing a proper viewpoint. Second, the church and cares for the living family of the one who committed suicide. Third, the church respects alienated people and gives love and care to them. Forth, the church notices contradictions of our society and makes effort to seek diverse solutions for these problems by long-term perspectives.

Key words : suicide, neglect-life, respect for autonomy, principle of non-maleficence, suicide prevention, solidarity, bio-culture

I. 들어가는 말

한국사회 안에 생명의 가치가 소홀히 여겨지는 거센 바람이 불고 있다. 사이코패스에 의한 무차별적인 살인, 연간 150만 건의 낙태, 삶의 질과 연관된 존엄사 논쟁, 배아조작, 이종 간 교잡 등과 같은 생명과괴현상이 한국 사회를 어려움에 빠뜨리고 있다. 한국사회의 생명경시풍조는 높은 자살률로 드러나고 있다. 자살은 연령과 계층, 성별을 가리지 않고 불특정 다수에게서 무차별적으로, 예측불허의 상황에서 발생하게 된다.¹⁾ 자살은 한번 밖에 살 수 없는 자신의 생명을 스스로 끊는 행위라는 점에서 금기시 되거나 부정적으로 취급되어왔다. 그런데 현재 한국의 자살률은 OECD 국가들 중 불명예스러운 1위를 고수하고 있으며, 자살률도 점진적으로 계속 증가하고 있다. 이는 그동안 성장일변도로 거침없이 달려온 한국사회가 안고 있는 고질적인 병폐와 모순을 그대로 드러내고 있다는 점에서 심각한 문제가 있다.

최근 유명인들이 줄지어 자살하면서 한국사회와 한국교회에 큰 충격을 안겨 주었다.²⁾ 영화배우 이은주, 가수 유니, 텔런트 정다빈, 최진실 등 유명 연예인들의 연이은 자살, 노무현 전 대통령의 갑작스러운 서거, 그리고 최근 재벌가 후계자의 자살, 그리고 최근 한류스타 박용하의 자살³⁾ 그리고 행복전도사로 행복과 희망의 메시지를 전했던 최윤희의 자살⁴⁾ 등

1) 오진탁, 『삶, 죽음에게 길을 묻다』(안성: 종이거울, 2010), 67.

2) 세계보건기구(WHO)의 통계에 의하면, 세계적으로 해마다 약 80만 8천명이 자살한다고 하는데, 이 수치는 교통사고로 사망하는 85만 6천명과 비슷하며, 조사기간 동안 전쟁으로 사망한 32만 2천명 보다 훨씬 많다. 『신경정신과학』(서울: 하나의학사, 1988), 대한신경정신의학회 편, 651.

3) 박용하는 2010년 6월 30일 자택에서 자살했는데, 스트레스로 인한 충동적 자살로 밝혀졌다. 동아일보, 2010년 7월 1일자.

4) 최윤희는 2년 전부터 흉반성 루푸스라는 면역계 질환으로 인해 고통당하다 남편과 함께 동반자살하였다. 그는 늘 밝고 활기찬 모습으로 많은 사람들에게 희망을 주었는데 남편과

이 연쇄적으로 이어졌다.⁵⁾ 이러한 유명인들의 자살은 베르테르효과를 가져오게 된다.⁶⁾ 2009년 통계청 사망원인통계자료를 분석한 결과 유명 연예인 자살 이후 두 달 평균 606명이 추가로 자살한 것으로 조사되었다.⁷⁾ 2011년 카이스트 학생 4명이 연이어 자살하였고, 뒤이어 카이스트의 생명과학과 교수가 자살하여 한국 사회에 큰 충격을 주었다.⁸⁾

자살은 삶의 의지가 결핍되거나 고갈됨으로 말미암아 선택하게 되는 절망적 행동이며 정신건강을 상실했을 때 나타나는 최악의 선택이기도 하다.⁹⁾ 자살은 모든 생명체가 본능적으로 갖고 있는 자기보존적인 충동

함께 자살로 생을 마쳤다. 동아일보 2010년 10월 9일. 구인회는 신체적 혹은 정신적 질환의 진행결과로 인해 죽음이 해결책으로 환영받고 요청되는 경우가 점점 빈번해질 것이라고 보았다. 구인회, 『생명윤리, 무엇이 쟁점인가』(서울: 아카넷, 2009), 13. 최윤희의 자살은 구인회의 입장에서 본다면 존엄사와 연관시켜 어느 정도 정당성을 인정받을 수 있겠지만 그의 건강한 남편의 자살은 도덕적 정당성을 얻을 수 없다.

- 5) 소외계층에서는 보다 광범위하게 자살이 발생하고 있다. 자살이 전염병처럼 확산되면서 동반자살도 증가하고 있는데, 이는 중대한 사회문제로 인식된다. 이미숙, 「가족동반자살에 대한 사회심리학적 탐색연구」, 『보건과 사회과학』 제20집, 2007년 1월, 154 참고.
- 6) 자살로 생을 마감한 사람들로는 헤밍웨이, 파울 체란(독일계 유대계 시인, 세느강에 투신 자살), 마지막 유끼오(일본 작가, 할복자살), 들뢰즈(철학자, 투신자살), 마를린 먼로, 엘비스 프레슬리, 짐 모리슨, 지미 헨드릭스, 커트 코베인, 가와바타 야스나리, 마야코프스키, 윤심덕(가수), 김우진, 이장희(시인) 등이 있다. 김별아, 「자살 그 살인의 심리학」, 월간 『말』 96호, (1994. 6), 221 참고. 박이문, 「자살소감」, 『철학과현실』, (2002. 6), 223 참고. 어니스트 헤밍웨이는 그의 아버지가 그랬던 것처럼 총으로 자살을 했는데, 이들은 모두 60대에 자살했다. 최근에는 헤밍웨이의 손녀딸인 마고 헤밍웨이가 목숨을 끊었다. J. M. Murpy, *Coping with Teen Suicide*, 이혜선·육성필, 『자살을 꿈꾸는 십대』(서울: 시그마프레스, 2006), 91.
- 7) 최진실의 자살 후 2개월간 1008건의 추정치가 나와 가장 많은 자살률을 보였다. 이러한 베르테르 효과에 의한 자살은 한 달 뒤 뚜렷하게 증가하다가 두 달이 지나면서 감소추세로 돌아섰다. 동아일보, 2010년 10월 4일자.
- 8) 자살한 카이스트의 학생들은 낮은 학점에 대한 등록금 추등 부과로 인한 열등감, 영어강의 부담으로 인한 우울증이 원인이었고, 생명과학과의 교수는 연구비 유용으로 조사받는 과정에서 자살하였다.
- 9) 자살은 고도산업사회인 선진국 젊은이들의 3대 사망원인이기도 하다. 그런 점에서 자살은 한 사회의 정신병리수준을 진단하는 중요한 지표가 된다. 김광웅, 『현대인과 정신건강』(서울: 숙명여자대학교출판국, 2005), 163.

을 거스르는 반자연적 파괴행위이며, 어떤 상황이나 어려움에도 살아야 한다는 삶에 대한 당위적 명령을 거역하는 비도덕적인 행위로 비치기도 한다.¹⁰⁾ 이로 볼 때 자살은 치유되고 극복되어야 할 사회병리현상 중 하나라고 할 수 있다.

자살은 행위 그 자체만으로도 용납될 수 없지만, 그의 가족, 동료, 그리고 그가 속한 공동체에 주는 충격과 부정적인 영향이 너무나 크기 때문에 심각한 사회문제가 된다. 신앙이 있다면 신앙으로 자살의 충동을 극복할 것이라 예상되지만 유독 기독교인들 중에서 자살자가 더 많은 것은 어떻게 해석해야 할 것인가?¹¹⁾ 교회사의 전통에서 볼 때 자살은 신앙인이 저지할 수 있는 가장 심각한 죄로 간주하여 자살자를 묘지에 매장하지 못하도록 하였다.¹²⁾ 또한 자살을 시도했던 사람은 교회의 모든 명예직에서 추방되기도 하였다.¹³⁾

그러나 오늘날에는 자살에 대해서 보다 다양한 시각으로 접근하고 있다. 정신의학이 발달하지 않았던 시대에는 자살을 쉽게 정죄했지만 우울증과 같은 일종의 정신질환 상태에서 자살했을 경우에는 윤리적으로 비난할 수 없다.¹⁴⁾ 오히려 자살을 우울증과 고립, 사회성 결핍으로 인한 결과

10) 박이문은 자살을 부정하는 이유로 첫째, 자살은 하나뿐인 자신의 생명을 스스로 끊는 끔찍한 사건이기 때문이며, 둘째, 자살행위는 인간 자신만 아니라 모든 생명의 가치부정을 함의하기 때문이라고 주장하였다. 박이문, 「자살소감」, 219-220.

11) 영화배우 이은주(2005. 2. 22), 가수 유니(2006. 1. 21), 정다빈(2006. 2. 10), 안재환(2008. 9. 8), 최진실(2008. 10. 2)은 모두 기독교인이었기에 이들의 자살은 한국 교회에 경각심을 일으켰다. 기독교인들에게서 나타나는 자살은 대체로 우울증과 같은 일종의 정신질환이 많은데, 윤리적 비판 보다는 질병치료의 관점에서 접근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이상원, 「기독교 윤리적 측면에서 본 자살」, 『신학지남』(2009. 3), 77 참고.

12) 교회가 자살을 처음으로 정죄한 것은 562년 Braga 공의회에서였는데, 자살자에 대해 장례예식을 치르지 못하게 하였다. Louis, P. Pojman, *Life and Death*, 78.

13) 자살자의 모든 재산은 몰수당했으며 그의 시신은 발가벗긴 후 수레에 싣거나 말에 매달아 거리에 끌고 다니며 군중들이 던지는 돌과 흙을 맞게 했고 시신은 다시 교수대에 매달기도 했다. 김남시, 「자유죽음론과 장 아메리」, 『자유죽음』, 264.

14) 이상원은 우울증 환자나 치매 환자의 자살은 자유로운 결단이 불가능한 상태에서 이루어

로 본다면 그들을 잘 돌보지 못한 가족이나 동료 또는 공동체의 책임이라 할 수 있다. 또한 사회구조적인 모순이나 불합리한 사회 제도가 구성원들을 자살할 수밖에 없도록 내몰았다고 본다면 자살자들은 오히려 잘못된 사회제도의 희생자로 볼 수 있다.

본 소고에서는 자살의 근본원인과 자살을 둘러싼 찬반양론을 고찰하면서 기독교 윤리적인 관점에서 자살에 대한 올바른 예방책을 모색하고자 한다. 이와 아울러 바람직한 생명문화의 정립을 제안하고자 한다.

II. 한국사회의 높은 자살률

한국사회의 자살률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다. IMF 직후인 1999년 자살로 인한 사망자는 7,056명에 불과했으나 점차 늘어나고 있다. 통계청의 자료에 따르면 자살로 인한 사망자는 2000년 6,460명, 2001년 6,933명, 2002년 8,631명, 2003년 10,932명, 2004년 11,523명, 2005년 12,047명으로 등으로 매년 6~7%씩 증가하는 추세이다. 1990년대까지만 해도 교통사고로 인한 사망자가 더 많았는데 현재는 교통사고 사망자보다 자살자가 더 많다.

2007년에는 12,174명이 자살했는데, 하루 평균으로 환산하면 33명이 스스로 목숨을 끊은 것이다. 2008년에는 12,858명이며, 2009년에는 15,413명으로 사상 최다를 기록했다. 이는 인구 10만 명당 31명꼴로 하루 평균 42.2명이다. 이는 10년 전과 비교하면 무려 107.5%증가한 수치이다. 사회 통념상 자살을 숨기는 경우가 많고, 행방불명된 이들, 신원을 쉽게 알 수

졌기에 윤리적 문제로 보기 보다는 질병의 문제 즉 정신과적인 치료의 관점에서 보아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이상원, 「기독교 윤리적 측면에서 본 자살」, 『신학지남』 (2009. 3), 58.

없는 사체의 경우까지 포함한다면 자살률은 더 높은 수치가 될 것이다.

현재 20대의 사망원인 중 1위가 자살이며 10대의 자살률도 급격히 증가하고 있다. 십대들의 충동적인 자살은 그들이 인생을 충분히 살기도 전에 자신들의 삶을 내던지기 때문에 당황스럽게 만든다.¹⁵⁾ 부모에게 있어서 자식의 죽음은 그 자체가 불효로 부모 가슴에 못을 박는 것이다.¹⁶⁾ 젊은 이들의 자살이 늘어나고 있는 현상은 우리 사회가 희망이 없다는 증거가 된다. 즉 오늘의 한국사회가 구성원들로 하여금 삶의 가치와 희망보다는 냉혹한 실패와 좌절을 제공하며, 삶의 의미와 만족 보다는 절망과 좌절감을 더 많이 안겨주고 있다는 증거이다.

자살률이 급증하게 된 원인은 경제위기와 사회양극화라는 우리 사회의 구조적 변동의 결과로 인식된다. 1997년 말 사회 안전망이 제대로 구축되지 못한 상태에서 갑작스럽게 IMF 경제위기를 맞으면서 사회양극화가 심화되었다. 소외계층들은 극심한 생활고를 경험하면서 가족결속이 약화되고, 상대적 박탈감과 무력감으로 삶의 의욕을 상실하면서 자살 위험에 노출되었다. 이러한 높은 자살률은 우리 사회가 사회제도적 장치와 문화적 기반이 취약하다는 증거이며, 구성원들에게 어려운 현실을 감내할 수 있는 건강한 정신적 가치를 제공하지 못하고 있다고 생각된다.

15) Louis, P. Pojman, *Life and Death* (Belmont: Wadsworth Publishing Company, 2000), 81. 청소년 상담원이 2007년 청소년 4,575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100명 중 59명이 자살충동을 느끼고 있고, 100명 중 11명이 자살을 시도했던 적이 있었다. 오진탁, 『삶, 죽음에게 길을 묻다』, 9.

16) 타살보다는 자살일 경우 상처와 충격은 더 크다. 강정인, 「정치, 죽음, 진실」, 『한국정치학회보』 제36집 3호, (2002. 9), 20 참고.

III. 자살의 원인

자살은 자유로운 결단을 통하여 자기 스스로 목숨을 끊는 행동 또는 자신에게 죽음의 위협이 다가오는데도 의도적으로 피하지 않고 그 위협을 자초하여 죽음을 맞이하는 행동을 가리킨다.¹⁷⁾

1. 자살의 개인적인 원인¹⁸⁾

자살하려는 사람이 처해있는 상황은 자유롭거나 자율적 행동과는 거리가 멀어 보인다. 자살 시점에 있는 사람은 임의로 지배할 수 없는 내적인 강박, 불안 혹은 환상에 빠져 있는 경우가 많다.¹⁹⁾ 그들은 자신이 탈출구 없는 절망상태에 빠져있다고 생각하여 극단적인 선택을 하게 되는 것이다.

첫째, 사랑하는 사람의 죽음으로 인한 상실의 아픔, 이성친구와의 결별, 새로운 환경에 적응하지 못하면서 생기는 갈등, 시험이나 진로에서의 실패 등의 충격적인 사건들이나 갈등은 심각한 좌절과 우울, 고립과 외로움, 그리고 정신적 충격을 안겨 주면서 자살이라는 극단적인 선택으로 몰아간다. 둘째, 개인이 감당할 수 없을 만큼 무겁고 괴로운 일들이 연속될 경우 희망을 상실한 채 무력감에 빠져들어 자살할 수 있다. 또한 살아갈 희망이나 근거를 잃어버릴 경우 자살하게 된다. 셋째, 참을 수 없는 고통을 회피하기 위해 자살하게 된다. 넷째, 약물이나 알코올 중독이 자살의 원인이 되기도 한다. 약물이나 알코올은 자기 통제력을 상실하게 하고 충동적으로 자살하게 만들 수 있다.²⁰⁾ 다섯째, 감당할 수 없을 만큼의 빚이나 경제적인 궁핍

17) 서정혁은 자살을 생명을 지니고 있는 자가 자신의 생명을 부정하는 일종의 자기 모순적 행위라고 보았다. 서정혁, 「해결의 법철학에서의 자살문제」, 『철학』 제92집, (2007. 8), 132 참고.

18) 김광웅, 『현대인과 정신건강』, 164 참고.

19) 구인회, 『생명윤리, 무엇이 쟁점인가』, 14-15 참고.

으로 인한 생활고가 자살의 원인이 된다. 기타 개인적 이유로는 입시실패나 불행한 가정 환경적 요인, 이성문제로 인해 자살하는 경우도 있다.

2. 자살의 심리적 요인

메닝거(Menninger)는 자살에는 죽음의 본능에서 나오는 죽이고 싶은 욕망(to kill), 처벌을 원할 때 초자아에서 나오는 죽임을 당하고 싶은 욕망(to be killed), 어머니의 자궁으로 돌아가고 싶은 욕망(to die)의 세 가지가 있다고 보았다.²¹⁾

프로이드는 인간 누구에게나 죽음의 본능이 내재하고 있으며, 자살을 일종의 걱정 상태로 보았다. 프로이드의 심리분석이론에 따르면, 인간의 삶은 두 개의 본능적 충동에 의하여 영향을 받는데, 하나는 생존본능인 Eros이며, 다른 하나는 죽음의 본능인 Thanatos라는 것이다.²²⁾ 마치 동전의 양면 같은 이 두 가지의 본능이 끊임없이 상호작용하면서 우리의 삶을 이끈다는 것이다. 그런데 Thanatos가 생존본능인 Eros를 누르고 우위를 점하면 자기 파괴적 행위를 하게 된다는 것이다.²³⁾ 프로이드는 자기 파괴는 협착화된 엄격한 양심의 결과이며, 이때 무거운 자기죄의식이 수반되는 우울증이 나타나며 이 우울증이 자살의 필연적인 전제조건이라고 보았다.²⁴⁾

하지만 성서적 관점에서 본다면 인간에게는 삶을 향한 갈망은 있지만 죽음을 향한 본능이 주어졌다는 것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죽음은 타락으로 인한 죄의 결과이며(롬 6:23), 죽음에의 충동은 잠정적이고 일시적인

20) 생화학적으로 세로토닌이라는 뇌신경 전달물질의 수준저하에 따라 자살이 급격히 진행 된다는 주장도 있다.

21) 이귀행, 「자살의 심리학적 측면」, 『생물치료정신의학』 10권 1호, (2004. 6) 12.

22) 프로이드는 생명의 출현은 삶을 지속해가는 원인인 반면 동시에 죽음을 향해 움직여가는 원인을 제공한다고 보면서 삶 자체가 이 두 경향 사이의 갈등이요 타협이라고 하였다. Sigmund Freud, 박찬부, 『쾌락원칙을 넘어서』(서울: 열린책들, 1997), 131.

23) R. J. Kastenbaum, *Death, Society, and Human Experience*(Mass: Allyn & Bacon, 2001), 202. 프로이드의 분석에 따르면, 삶의 만족감에 많은 장애들이 있으며, 우리의 공격성이 내부적으로 압박하기에 자살 취약성은 모든 사람에게 존재한다고 보았다.

24) 이상원, 「기독교윤리적 측면에서 본 자살」, 『신학지남』 (2009. 3), 63.

충동일 뿐이지 인간이 본성적으로 갖고 있는 충동이라고 보기는 어렵다. 자살을 ‘한 개인의 고독한 결단’으로 보게 되면 자살을 지나치게 단순화시키면서 개인과 사회를 분리시키게 된다. 따라서 자살을 사회적인 차원에서 접근할 필요가 있다.

3. 자살의 사회 구조적인 요인

뒤르켐은 자살의 원인을 이기적 자살, 이타적 자살, 아노미적 자살 등 세 가지로 구분했다.²⁵⁾ 이기적 자살은 사회의 통합의식이 약화되어 사회로부터 소외되어 있다는 의식을 가질 때 자살하는 유형이다. 반면 이타적 자살은 사회적 통합의식이 너무나 견고할 때 일어나는 자살이다. 뒤르켐은 사회적 규범과 가치가 각 개인을 통제하거나 지도하지 못하여 영향력을 상실하게 되면, 공백이 발생하게 된다. 그러면 개인은 결국 어떠한 제도장치도 없이 방치되는데, 그 결과가 바로 자살로 이어지게 된다고 보았다.

오진탁은 “우리 사회의 자살 현상은 단순히 개인문제라기보다는 물질만능주의, 전통적 가족관계의 해체, 폭력적인 인터넷문화, 극심한 스트레스와 우울증의 확산, 학벌지상주의, 외모지상주의 등 온갖 사회병리현상들이 총체적으로 집약되어 있는 양상이라는데 문제의 심각성이 크다”고 지적하였다.²⁶⁾ 사회적 격차가 벌어져 상대적인 박탈감을 심화시키고, 약자와 소수를 배려하는 사회적 안전망이 약화될 때 소외된 자들은 설 자리를 잃어버리고 삶의 의미를 상실하게 되어 자살로 내몰리게 된다. 따라서 고실업시대의 자살은 개인적 불행을 넘어 사회 전체의 불행이라 할 수 있다.

25) Emile Durkheim, tr J. A. Spaulding & G. Simpson, *Suicide*(New York: The Free Press, 1951), 152-276.

26) 오진탁, 『삶, 죽음에게 길을 묻다』(안성: 종이거울, 2010), 110.

IV. 자살에 대한 윤리적 판단

1. 자살찬성논변

1) 생명에 대한 소유권

자살 옹호자들은 생명에 대한 소유권에 기초해서 자살의 정당성을 주장한다. 인간의 생명권도 기본적으로 소유권을 기반으로 하는데, 한 인격으로서의 개인은 자신의 생명을 자기 의지를 통해 소유하고 있다는 것이다. 따라서 인간은 다른 물건과 마찬가지로 생명을 소유할 뿐 아니라 생명의 포기와 양도도 가능하다는 것이다.²⁷⁾

흄은 자살이 신과 이웃, 그리고 우리들 자신에 대한 의무의 파기가 아니라고 주장한다. '나의 생명'은 '나의 것'으로서, 나는 그것을 자유롭게 처분할 권리를 지니며, 이는 자연 법칙에도 부합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²⁸⁾ 루소도 개인은 자신의 생명을 자유롭게 처분할 권리가 있음을 주장했다.²⁹⁾ 따라서 인간이 생명에 대한 소유권을 갖고 있다면 자신의 소유물인 생명을 스스로 포기하거나 양도하는데 도덕적으로 문제 삼을 수 없다.

그런데 생명은 다른 물건들처럼 소유의 주체인 인격 외부에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본질적으로 인격 내부에 존재한다. 생명이 인격 내부에 존재하기 때문에 생명은 하나의 물건처럼 쉽게 포기하거나 양도할 수는 없다. 따라서 생명을 포기하거나 양도한다면 그것은 생명의 주체인 인격 그 자체를 포기하거나 양도하는 것과 마찬가지로 된다.³⁰⁾ 생명은 인격에 대해 외적인 것이 아니라 내적인 것이기 때문에 쉽게 포기하거나 양도할 수는

27) 서정혁, 「헤겔의 법철학에서의 자살문제」, 『철학』 제92집, (2007. 8), 134-135.

28) 황필호, 『데이비드 흄의 철학』(서울: 철학과현실사, 2003), 115-129.

29) 루소는 모든 개인은 자신의 몫으로 남겨진 재산과 자유를 마음대로 처리할 수 있다고 보았다. J. J. Rousseau, 방근, 『사회계약론』(서울: 신원문화사, 2006), 63-64.

30) 서정혁, 「헤겔의 법철학에서의 자살문제」, 『철학』 제92집, (2007. 8), 140.

없다. 따라서 생명을 인간에게 속한 소유물로 볼 수는 없다.

만약 생명이 인간의 소유물이라면 자기통제를 행사할 수 있어야 한다. 그러나 생명의 시작과 끝은 인간의 한계 밖에 있기에 생명을 통제할 수 없다. 따라서 생명에 대한 소유권을 기반으로 자살의 권리를 주장하는 것은 자기모순이다. 생명을 권리로 인식할 경우 왜곡되거나 남용될 가능성이 많으므로 생명은 권리가 아니라 의무로 보는 것이 바람직하다.

2) 자율성 존중의 원칙

자율성 존중의 원칙은 자기 신체에 발생하는 모든 일에 대하여 스스로 결정할 권리를 가지고 있으며 그러한 권리는 존중되어야 한다는 주장이다.³¹⁾ 인간은 자신의 죽음을 어떻게 맞이할 것인가에 대한 결정에서 그 누구에게도 설명할 의무를 가지지 않으며, 다른 사람들에게 자신의 개인적 결정에 대해 도덕적 근거를 밝힐 의무가 없다는 의미에서 자율인 것이다.³²⁾ 자율성 존중의 원칙에 따르면 인간은 자기 운명의 주인으로서 스스로 죽음을 선택할 권리가 있다.³³⁾

그런데 칸트 이후 자율이라는 개념은 보편적으로 유효한 도덕원칙을 지킬 수 있는 한계 안에서 사용될 수 있다. 가령 내가 나 자신의 죽음을 결정할 수 있기 위해서는 다른 사람들도 나와 동일한 원칙에 따라 동일한 결정을 할 수 있다는 의미에서 보편타당성을 얻어야 한다는 의미이다. 칸트는 ‘행위준칙의 보편화가능성’의 관점에서 볼 때 자살은 바람직하지 못하다고 보았다. 불행에 처한 사람이 자신을 위한다는 입장에서 자살을 한

31) 이종원, 「안락사의 윤리적 문제」, 『철학탐구』 제21집, (2007. 5), 171.

32) 구인회, 『생명윤리, 무엇이 쟁점인가』(서울: 아카넷, 2009), 16.

33) 계몽주의 시대 이후 인간의 자율성을 강조한 몽테스키외, 루소, 흄, 괴테, 쇼펜하우어, 니이체 등에 의하여 자살이 옹호되었다. 이상원, 「기독교윤리적 측면에서 본 자살」, 『대학과선교』 제12권, (2007. 6), 62.

다면, 자신을 위한다는 이 행위가 도리어 자신의 생을 파괴하는 모순을 빚게 된다는 것이다. 칸트에 의하면 스스로 자신의 생명을 파괴하는 자살은 자유의지 자체에 모순될 뿐 아니라 자기 자신에 대한 최상의 의무를 위반하는 것이 된다.³⁴⁾

또한 자살은 자신의 생명을 스스로 훼손함으로써 자신의 남은 생을 스스로 박탈하는 잘못된 결과를 빚기 때문에 악행금지의 원칙에 위배된다.³⁵⁾ 따라서 자살은 바람직하지 못하다.

3) 자유죽음

장 아메리는 인간을 죽음으로 내모는 나치스의 광기와 폭력을 적나라하게 고발하면서 싸웠던 아우슈비츠의 생존 작가이지만 1978년 10월 17일 자신의 평소 주장대로 수면제를 먹고 스스로 자유죽음을 택하였다. 장 아메리는 아직 때가 무르익지 않았음에도 찾아온 죽음은 겁쟁이의 죽음이라고 보았다. 반면 인생을 사랑하는 마음에서 택한 죽음은 이와 다르다는 것이다. 이는 깨어 있는 명료한 의식을 가지고 택한 죽음이며, 이것이 바로 자유죽음이라는 것이다.³⁶⁾ 그런 점에서 장 아메리는 자유죽음은 인간의 특권이라고 주장하였다.³⁷⁾

34) “자유가 삶의 조건이라면 자유는 삶을 끝내는 것에 봉사할 수 없다. 그렇지 않으면 자유는 자유 자체를 파괴하고 취소할 것이 때문이다.” I. Kant, *Eine Vorlesung über Ethik*, 189. 구인회, 『죽음과 관련된 생명윤리적 문제들』(서울: 집문당, 2008), 52 재인용.

35) 유희종은 인간에게는 생명을 훼손할 권리가 있다고는 인정할 수 없으며 따라서 자살의 권리 역시 인정할 수 없다고 주장하였다. 유희종, 「자살은 정당화될 수 있는가?」, 『철학과 현실』 82호,(2009. 9. 가을호), 42.

36) Jean Amery, *Hand an sich legen. Diskurs über den Freitod*, 김희상, 『자유죽음』(서울: 산책자, 2010), 56.

37) *Ibid.*, 85. 장 아메리는 죽음에 대해 수동적인 자세를 취하기보다는 보다 적극적으로 죽음을 맞이할 것을 강조하면서 자유죽음을 예찬하였다. “자유죽음, 즉 스스로 목숨을 끊음은 의심의 여지없이 문법적으로나 실제로나 적극적인 행위이다. 죽음을 향해 마지못해 나아가는 인생과 자유죽음이라는 자발적인 행위는 간단하게 비교될 수 있는 게 아니다.

장 아메리는 인간은 그 무엇으로도 속박당하지 않을 자유가 있고, 그 누구에게도 소속되지 않을 자유가 있다. 그런 점에서 생명의 주인은 인간 자신이라고 주장했다.³⁸⁾ 장 아메리의 주장에 따르면 자유죽음은 자신의 것을 가지고 자유로 죽음을 선택한 것이므로 자신에게 죄가 되지 않고, 인간은 사회적 관계 속에 포섭되지 않는 독립적이고 자존적인 존재가 이윽이나 그 누구에게도 잘못이 아니며, 생명의 주인이 자신이므로 그 어떤 타인이라도 이 권리를 침해할 수 없고, 설령 하나님이라 할지라도 이를 간섭할 수 없다고 보았다.³⁹⁾

그러나 인간은 혼자일 수는 없다. 인간은 이 세상에 존재하는 순간부터 부모와의 관계로 시작되며, 다양한 관계의 그물망 속에서 살아간다. 이러한 관계성의 차원에서 본다면 인간은 철저히 관계 안에 존재이며, 의타적인 존재라고 할 수 있다. 그런 점에서 아메리가 주장한 자유도 온전한 관계 안에서만 누릴 수 있는 것이라 할 수 있다. 따라서 그 누구도 공동체와 무관한 사람은 없기 때문에 자살은 자유로운 개인의 선택일 수 없고, 자기 임의로 선택할 수 있는 것은 더욱 아닌 것이다.

4) 고통에 대한 유일한 해결책

자살을 고민하고 있거나 자살을 실행하려는 이들은 자살을 자신이 당하는 고통을 마감하는 수단 내지 고통에 대한 마지막 해결책으로 생각하는 경향이 있다. 자신이 계속 고통받으며 살아가기보다는 차라리 죽는 것

어쩔 수 없이 죽어야만 하는 사람은 운명이 부르는 소리에 마지못해 대답할 뿐이다. 겁에 질려 가까스로 하는 대답이 있는가 하면, 용감하게 맞서 외치기도 한다. 자유죽음은 죽음을 소리쳐 부르는 행위이다.” *Ibid.*, 33.

38) “인간은 근본적으로 자기 자신에게 속하는 존재이다. 사회적으로 복잡하게 얽혀있는 그물망을 뒤집어엮우지 않고 생각해야 하는 존재가 인간이다. 따라서 살아야만 하는 편견으로부터 자유로워야 하는 존재가 인간이라는 것이다.” *Ibid.*, 173.

39) *Ibid.*, 182.

이 더 낫다고 생각한다. 그리하여 극심한 고통으로 인한 감정의 격동 상태에서 극단적인 선택하게 된다.

하지만 고통은 피한다고 해결되지는 않는다. 순간의 고통을 피하기 위해 자살을 선택한다면 이는 올바른 선택이라고 할 수 없다. 고통의 진정한 의미는 쉽게 드러나지 않을 때가 많다. 아무 의미가 없어 보였던 고통이 오랜 시간이 지난 후에는 의미있게 생각되기도 하고, 인격이나 신앙이 성숙한 이후에는 그 고통을 새롭게 해석하기도 한다.

사람마다 정도의 차이가 있겠지만 모든 사람은 크든 작은 고통과 시련을 겪는다. 이러한 고통은 반드시 지나가기 마련이다.⁴⁰⁾ 고통이 때로는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는 신비한 방편이 되기도 한다.⁴¹⁾ 인간적인 시각으로는 불합리하고 무의미하게만 보이는 고통이 보다 깊은 의미로 해석되기도 한다. 따라서 고통의 의미가 당장 분명하지 않다고 선 듯 자살을 선택하게 되면 그 고통이 갖고 있는 숨은 의미를 놓쳐버리는 우를 범하게 된다.⁴²⁾

5) 죽음을 탈출구로 봄

자살하는 많은 이들은 죽음을 지나 더 나은 새로운 세계를 동경하고

40) 기독교적 관점에서 본다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참을 수 있는 것 이상의 고통을 주시지는 않는다. 따라서 스스로 목숨을 끊는 것은 고통의 한계를 스스로 정하고 믿음을 저버리는 결과가 된다. L. L. Townsend, *Suicide Pastoral Responses*, 박선규, 『자살-자살에 대한 목회적 대응』(서울: 순전한나드, 2009), 24 참고.

41) 이종원, 「기독교 생명윤리적 관점에서 본 소극적 안락사」, 『대학과선교』 제12권, (2007. 6), 287.

42) 유희종, 『죽음에게 삶을 묻다』(서울: 사피엔스 21, 2010), 84. 중세 신학자들의 견해에 따르면 고통과 악은 선에 대립해 있는 실체가 아니라 단지 선이 모자라는 상태이다. 따라서 고통과 악은 선이 완전히 결핍된 무보다 더 나으므로 가치비교를 해보면 선(악<무의 순서가 된다. 비록 고통이 아무 의미도 없는 경우에도 그런 고통을 느끼며 존재하는 것이 자살로써 존재를 포기하는 것보다는 낫다고 볼 수 있다.

희망하는 경향이 있다. 만약 그러한 기대감이 없다면 쉽게 자살할 수 없을 것이다. 박형민은 자살을 현재의 고통픈 삶을 최악(最惡)으로 여기기에 그것을 극복하기 위한 차악(次惡)의 선택으로 보면서, 자살이 자신의 삶의 과정과 죽음의 결과를 고려한 성찰의 과정을 거친다는 점을 강조하였다.⁴³⁾

그러나 자살이 자신이 현재 겪고 있는 문제에 대한 유일한 탈출구가 아닐 가능성이 많다. 자살을 선택하기 전에 먼저 현재의 고통이 정말 무의미하기만 한 것인지, 그리고 남은 생애 동안 어떠한 변화도 불가능한 것인지, 스스로 생을 포기할 경우 자신과 가족들에게 어떤 결과가 발생할지 고품이 따져 본다면 쉽게 선택할 수 없을 것이다.

2. 자살반대논변

1) 아우구스티누스

아우구스티누스는 자살은 저주를 받아야 할 사악함이며, 인간이 저지를 수 있는 큰 죄임을 지적했다.⁴⁴⁾ 6계명은 살인하지 말라고 가르치고 있는데, 자살자는 이 계명을 어긴 것으로 간주했다. 비록 죄를 피하기 위해 순결한 죽음을 선택한다 해도 죽음의 책임이 자신에게 돌아가게 됨으로 죄리는 것이다.⁴⁵⁾ 생명은 하나님이 주신 선물이며, 인간의 고난은 이

43) 박형민, 『자살, 차악의 선택』(서울: 이학사, 2010), 7.

44) 아우구스티누스는 자살은 육체를 더럽히는 행동이 아니라 영혼을 더럽히는 행동으로 간주하여 철저히 거부했다. 이상원, 「기독교윤리적 측면에서 본 자살」, 65.

45) 락탄티우스는 자살은 살인과 마찬가지로 보았는데 이는 하나님이 주신 자기-보존의 의무에 위배되기 때문이라는 것이다. 또한 아우구스티누스는 자살은 자살자가 이미 죽었기 때문에 속죄할 길이 없다는 이유에서 반대하였다. G. Dworkin, & R. G. Frey, & Sissela, BoK, *Euthanasia and Physician-Assisted Suicide* (Cambridge: Cambridge University Press, 1998), 97-98. 또한 아우구스티누스는 여성들이 강간의 위협 앞에서 그룹으로 자살한 사건에 대해 살인을 금하는 계명은 스스로 목숨을 끊는 행위에도 적용된다고 강조하면서 순교적 자살을 금지하였다. L. L. Townsend, 『자살-자살에 대한 목회적

미 운명으로 정해진 것이기에 자살 행위로 그 기간을 단축할 수 없다는 것이다.⁴⁶⁾

2) 토마스 아퀴나스

토마스 아퀴나스는 자살이 정당화될 수 없는 근거를 세 가지 이유로 설명하였다.⁴⁷⁾ 첫째, 자신과의 관계에서 보면 자살은 용납될 수 없다. 살아있는 모든 존재는 본질적으로 자신을 사랑하고, 부패와 사멸에 저항하는 속성을 가지고 있다. 그런데 자살은 자신의 타고난 생의 본성을 거스르고 자신에게 자비를 베풀지 않는 것이기에 죄이다. 또한 자살은 자연법과 자비에 반하므로 항상 치명적인 죄라는 것이다. 즉 자살은 자기 자신을 사랑하는 자연적인 성향에 대항하는 죄라는 것이다.

둘째, 자살은 공동체에 죄를 짓는 것이다. 모든 개인은 사회의 한 부분으로서 공동체에 소속되어 있다. 따라서 자살은 자신이 속한 집단에 피해를 주는 행위이다.⁴⁸⁾

셋째, 자살은 하나님께 죄가 된다. 생명은 하나님의 선물이다. 생명의 주인은 인간이 아니라 하나님이다. 인간에게 주어진 생명은 하나님이 인간에게 선물로 주신 것이며, 생명의 주권도 하나님께 속한 것이다. 따라서 생명이 인간에게 속한 것이 아니므로 인생이 살만한 것인지에 대한 결정도 인간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역에 속한 것이 된다.

대응』, 23-24 참고.

46) 황봉환, 「자살문제에 대한 성경 및 신학적 논증과 예방적 대안」, 『신학과실천』 7권, (2009. 4), 145. 기독교의 자살금지에는 영아살해금지나 낙태금지와 마찬가지로 생명에 대한 경외감을 기반으로 하고 있다. A. Alvarez, 최승자, 『자살의 연구』(서울: 청하, 1992), 79.

47) 토마스 아퀴나스는 자살은 본성과 자애(charity)에 반하며, 사회에 반하며, 하나님의 선물을 파괴하는 것이기 때문에 용서받을 수 없는 죄라고 교회의 공식입장을 규정하였다. Louis, P. Pojman, Life and Death, 78.

48) 아퀴나스는 공동체의 재산을 침해하기 때문에 노예가 자살하는 것을 반대하였다.

3) 자살의 해악성

첫째, 자살은 자기 자신에게 해가 된다. 하나뿐인 자기 자신의 생명을 해치는 것이기 때문이다. 생명은 일회적이며 한번 훼손되며 다시 복구하거나 회복시킬 수 없다. 자살을 선택한 사람들은 자살로써 고통에서 벗어날 수 있다고 믿기 때문에 자살을 실행하는데, 이런 믿음과는 달리 죽음 이후 계속 고통받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⁴⁹⁾ 따라서 삶이 비록 고통스럽고 힘들더라도 자살로써 생명을 단축시키려 하기 보다는 주어진 삶을 책임있게 살면서 죽음을 자연스러운 과정으로 맞이하는 것이 더욱 바람직하다.

둘째, 자살은 이웃 특히 가족들과 가장 가까운 사람들에게 해를 끼친다. 자살의 강력한 피해 중 하나는 자살자의 유족들이 느끼는 극심한 죄의식과 비통함이다. 자살자들은 어떠한 고통과 우울 속에 고립되어 있었던 자살이라는 행동으로 모든 것을 마감한다. 하지만 죽음 이후의 남겨진 고통은 오직 살아남은 자의 것이 된다. 자살로 인해 그의 가족과 동료들은 말로 다 할 수 없는 상처와 아픔을 겪게 된다. 따라서 자살로 인한 고통은 일정 시간이 지나면 끝나지 않기에 자살로 인해 당겨진 죽음의 시간만큼 주변인들은 더 오랜 시간 고통을 받게 된다.⁵⁰⁾

또한 자살은 본인의 죽음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가족과 가까운 사람들에게 극심한 상실감과 더불어 죄책감과 우울증을 남긴다.⁵¹⁾ 자살은 자신을 해침으로써 가족과 이웃에게 치명적인 상처와 아픔을 남기게 된다.

셋째, 자살은 다른 사람들에게 허무의식을 남기기도 한다.⁵²⁾ 그리하여

49) 유효중, 『죽음에게 삶을 묻다』(서울: 사피엔스 21, 2010) 82.

50) 유족들은 자신을 비난하거나 심한 죄책감을 느끼며,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를 경험하기도 한다. J. M. Murpy, *Coping with Teen Suicide*, 167.

51) 자살자의 가족이나 동료들이 느끼는 애도 과정은 충격, 부정, 슬픔과 우울. 자살로 사망한 자와의 동일시, 죄책감, 수치심, 분노, 적응 등의 단계를 거친다. *Ibid.*, 151.

52) 김별아, 「자살 그 살인의 심리학」, 219 참고.

생존의 의미에 대해 종종 회의를 느끼는 사람들은 자살자들의 행위에 직접적인 영향을 받게 되고 모방자살을 하거나 동반자살을 시도하게 된다.

따라서 자살을 고려하는 사람은 자신의 죽음이 주위 사람들에게 어떤 고통을 가져올 것인지에 진지하게 예견해 보아야 한다. 자살자의 가족이 쓴 수기나 그 실상을 조사한 자료들을 찾아 읽어볼 필요가 있다.⁵³⁾ 그런 다음 자신이 자살로서 벗어나고자 하는 고통이 그에 비해 과연 얼마나 큰 것인지를 진지하게 물어 보아야 한다.

V. 자살예방의 윤리

우리는 통상적으로 죽음의 문제에 대해서는 침묵하는 경향이 있는데, 특별히 자살의 경우는 더욱 금기시된다.⁵⁴⁾ 자살은 자신의 생명을 스스로 훼손함으로써 사회적 손실을 가져다 줄 뿐 아니라 가정 공동체의 해체로 이어지게 된다.

비른바허(Birnbacher)는 숙고된 자살의 결정은 일반적으로 존중되어야 하는 것이 분명하다고 주장한다. 또한 우리는 모든 선택사항을 충분히 고려하고 세심히 숙고한 후 결정한 자살자를 방해할 권리가 없다고 보았다.⁵⁵⁾ 하지만 자살을 시도하려는 자가 충분한 숙고를 통해 결정한 자살로 보이더라도 자살이 결코 자살자의 최선의 이익이 아니라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강제력을 동원해서라도 막는 것이 바람직하다. 자살이 비록 도덕적으로 정당하게 보이고 심적으로는 충분히 공감이가더라도 막는 것이 공동체의 의무이며 타자를 위한 윤리이기 때문이다.

53) 유효중, 「자살은 정당화될 수 있는가?」, 『철학과 현실』 82호 (2009. 가을호) 52.

54) Louis, P. Pojman, *Life and Death*, 76. 자살이 발생한 집안에서는 수치심을 느끼며 숨기는 경우가 흔하다.

55) 구인회, 『죽음과 관련된 생명윤리적 문제들』(서울: 집문당, 2008), 61.

그런 점에서 자살예방의 원칙에는 호혜성의 원칙에 기반을 둔 간섭주의(Paternalism)가 허용된다. 그러나 강제 수단보다는 자살 충동을 스스로 극복하도록 태도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대화, 설득, 신뢰 등과 같은 방법이 더 효과적이다.

자살예방을 위한 노력은 개인에 초점을 맞춘다면 효과적일 수 있지만 보다 폭넓은 사회 정책적 접근이 더욱 효과적이다.⁵⁶⁾ 자살을 예방하기 위해서는 다양한 방법들이 다각도로 시도되는 것이 바람직하다.

1. 생명 존엄성에 기초한 생명존중운동

자살문제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생명존중운동에서 시작되어야 한다.⁵⁷⁾ 생명존중운동은 생명주권에 대한 올바른 고백에서 시작된다. 즉 생명주권은 인간에게서가 아니라 하나님께 속해 있다는 점을 인정하는데서 시작된다.⁵⁸⁾ 이러한 생명주권에 대한 고백은 생명은 신성하며 어떠한 경우에도 침해될 수 없다는 성서적 가르침에 기초하고 있는데, 이는 인간이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되었다는 사실에 근거한다(창 1:27). 모든 인간은 본질적으로 부여된 내재적 존엄성(intrinsic dignity)을 갖고 있다. 그러므로 인간의 생명은 그 어떤 가치와도 비교될 수 없는 존엄한 가치를 지닌다.⁵⁹⁾ 하나님은 생명의 주인이며, 인간의 생명은 오직 하나님의 뜻과 영

56) R. J. Kastenbaum, *Death, Society, and Human Experience*(Mass: Allyn & Bacon, 2001), 191 참고.

57) 생명의 가치는 모든 생명체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가치이다. 만약 생명의 주체인 자신이 존재하지 않는다면 그 어떠한 것도 자신에게 의미가 없기 때문이다. 그런 점에서 자신의 생명을 의도적으로 버리는 것은 생물학적인 자기모순이다.

58) 이동익은 생명은 인간의 능력이나 기술이 아니라 전능하신 하나님의 창조적인 힘을 통해 나타났기에 절대성을 지니며, 생명은 하나님 이외 누구에게도 위임될 없다는 점에서 생명의 절대성을 강조하였다. 이동익, 『생명의 관리자』(서울: 가톨릭대학교출판부, 2003), 35.

59) 이종원, 「기독교 생명윤리적 관점에서 본 존엄사」, 『기독교사회윤리』 제17집, (2009. 6), 177 참고. 가톨릭 윤리학자 메이(May)는 인간의 생명이 가치있는 궁극적인 이유는

광을 위하여 사용해야 한다. 그런데 자살은 하나님이 부여한 생명을 훼손하는 것이므로 하나님의 주권을 침해하는 것이다. 따라서 자살을 부추기거나 사회적 혼란과 일탈을 조장하는 일은 생명존엄에 대한 도전이라 할 수 있다.⁶⁰⁾

따라서 자살을 극복하기 위해서는 생명주권적 사고로 전환되어야 한다. 생명주권은 생명경시의 풍조를 극복하고 생명존중의 가치를 회복하는 기초가 된다. 또한 생명존엄을 위한 윤리적 가치의 확립은 이론적인 차원에서 머물 것이 아니라 보다 실천적인 생명존중운동으로 나아가야 한다.

2. 삶의 의미와 희망 제공

자살은 삶의 의미와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다. 만약 인생이 살만한 가치가 없다면 자살에 쉽게 노출될 것이고, 인생이 살만한 가치가 있다고 느낀다면 자살의 위기에도 불구하고 생을 선택할 것이기 때문이다.

따라서 자살을 예방하기 위해서는 삶의 의미에 대한 긍정적인 동기부여가 선행되어야 한다. 삶을 지탱시켜주는 강력한 동기는 희망의 등불이다. 오늘 보다는 내일이 더 아름답고 행복할 것이라는 희망이 현재 겪는 고통과 시련을 견디고 극복할 수 있게 만든다. 희망만이 '자살'에의 충동을 '살자'는 삶에의 충동으로 역전시킬 수 있다.

이로 볼 때 건강한 사회적 지지집단의 구축은 자살 예방의 중요한 자원이 된다. 지지집단은 공통의 조건이나 경험을 공유하는 사람들로 구성되

생명이 선하며 하나님의 가장 큰 선물이기 때문이라고 보면서, 하나님은 우리가 생명을 지키고 보호하도록 하기 위하여 생명을 주셨다는 점을 강조한다. William E. May, *Catholic Bioethics and the Gift of Human Life* (Huntington: Our Sunday Visitor, Inc, 2000), 252.

60) 문시영, 「생명윤리교육의 방향설정을 위한 하나의 자성적 제안」, 『생명윤리』 제10권 2호, (2009. 12), 20. 문시영은 생명존엄을 위한 가치관 확립의 중요성을 강조하면서 생명의 신비와 경외심을 품을 것을 제안하였다. *Ibid.*, 23.

며, 전문가나 동료 지도자에 의해 지도되고, 구체적인 치료 목표에 따라 조직된다.⁶¹⁾ 지지집단은 자살충동을 느끼는 자들이 겪는 외로움을 완화시켜 주고, 그들의 고통을 이해하고 같이 나눌 마음의 준비가 되어 있는 사람들이다. 건강한 사회적 지지집단은 소외된 자들에게 삶의 희망을 심어주고 그들에게 정서적 지지와 자신감을 제공하며 다양한 심리적 문제와 신체적 문제들을 해소시켜 줄 수 있다. 삶의 무게로 인하여 절망하고 지쳐 있는 자들과 진정한 나눔과 섬김을 통해 희망을 이야기하고 삶의 의미를 부여할 수 있다.

3. 공동체의 연대성 강화

자살예방은 공동체의 연대성과 밀접한 연관성을 갖는다. 모든 사람은 사회적 연대관계 속에서 살아간다는 점에서 모든 개인들은 그들이 속한 사회에 통합되어 있다고 할 수 있다. 그런 점에서 자살 위험은 개인과 사회 사이의 사회적 통합의 정도에 의존한다.⁶²⁾ 따라서 한 개인이 자살을 의도한다면, 그것은 그 개인뿐만 아니라 그가 속한 공동체가 자살을 필요로 할 만큼 유기적 생명력을 상실하고, 죽은 기계로서 작동하고 있음을 나타내는 반증이다.⁶³⁾

하우어워스는 우리들을 “이야기로 이루어진 사람들(storied people)”이라고 정의내리면서, 우리를 지탱시키는 하나님은 “이야기된 하나님(storied God)”이며, 우리는 오직 하나님의 성품에 적합하게 형성된 성품을 가짐으로서만 이야기된 하나님을 알 수 있다고 하였다.⁶⁴⁾ 이야기로 이루

61) 문성원, 「자살 사이트의 생성 및 이용」, 한국청소년개발원연구보고서, (2003. 1), 55.

62) R. J. Kastenbaum, *Death, Society, and Human Experience*, 196.

63) 서정혁, 「혜겔의 법철학에서의 자살문제」, 『철학』 82호, (2009. 9. 가을호), 155-156.

64) Stanley Hauerwas, *A Community of Character* (Notre Dame: University of Notre Dame, 1981), 91.

어졌다는 것은 공통된 이야기를 소유하는 공동체라는 의미이다. 하우어워스에 따르면 자살하는 사람들은 대부분 비난받을 만한 일이 있어서라기 보다는 오랫동안 공동체 안에서 포기과 분리의 과정을 겪으며, 최종적으로 자살로 드러나게 되었다는 것이다.⁶⁵⁾ 이런 관점에서 본다면 자살은 공동체가 그 구성원들을 공동의 기억을 상기시키면서 따쓰하게 감싸주지 못한 결과라고 볼 수 있다.

하우어워스는 그러한 성품의 형성은 분절된 사건(isolated event)이 아니라 이야기된 사회(storied society), 그에 부합하는 사회의 현존을 요구한다고 보았다.⁶⁶⁾ 따라서 자살예방은 공동체의 연대성을 회복하는데서 시작되어야 한다. 이러한 공동체의 회복은 교회 공동체가 먼저 모범적인 모델로서 제 기능을 함으로써 가능하다. 교회는 생명공동체로서 하나님의 선물인 생명을 살리고 나누는데 헌신해야 한다.⁶⁷⁾ 그러기 위해서는 교회 공동체는 모든 계층의 사람들과 함께 소통하고 연대할 수 있어야 하며, 공동체 안에서 자신의 삶에 대한 진솔한 이야기를 나눌 수 있도록 배려해야 한다. 또한 서로 사랑으로 품어주고 지극한 애정으로 관심을 갖고 상호 소통하는 공동체가 되어야 한다. 언제 찾아와도 편안한 휴식이 있고, 서로 기댈 수 있는 피난처가 바로 진정한 교회 공동체의 모습이다. 이러한 연대성 속에서 서로 진심으로 돌보는 자세를 유지할 때마다 그들의 삶을 긍정하는 정신을 강화할 수 있게 된다.⁶⁸⁾

65) 김기현, 『자살은 죄인가요?』(서울: 조이선교회, 2010), 60 참고.

66) Stanley Hauerwas, *A Community of Character*, 91.

67) 헤이스는 교회공동체를 생명공동체로 정의내리면서, 성서를 통해 개별증언을 자세히 읽고, 도덕적 비전 안에 있는 공통요소들에 대해 종합적으로 묵상하고, 성서 본문들을 실제 상황에 적용할 때의 해석상의 절차들을 숙고하며, 그리스도인 공동체에 실행할 것을 제안하였다. R. B. Hays, *Moral Vision of the New Testament*, 유승원, 『신약의 윤리적 비전』(서울: IVP, 2007), 690-691.

68) R. J. Kastenbaum, *Death, Society, and Human Experience*, 205 참고.

4. 자살예방교육과 자살예방시스템 구축

올바른 자살예방교육을 통해 사회 구성원들에게 건강한 자아상을 심어 줄 필요가 있다. 또한 개인적인 고민과 문제들을 따뜻한 사랑과 관심으로 상담해 줄 필요가 있다. 선진국에서는 자살예방을 위해 초등학교에서부터 대학교에 이르기까지 죽음준비교육을 성장과정에 맞게 다양한 교과목 안에 포함시켜 가르치고 있다.⁶⁹⁾ 따라서 바람직한 죽음준비교육은 건강한 삶과 건강한 죽음을 목표로 하면서 자살예방을 위한 효과적인 대안이 된다. 오진탁은 자살예방교육을 통해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잘못된 죽음 관이나 자살에 대한 생각을 바꾸기만 하면 자살충동을 상당부분 치유할 수 있음을 강조하였다⁷⁰⁾

자살자의 75%는 자살 전에 자신의 의도를 분명히 예고한다는 연구보고가 있는데, 자살을 생각하고 있는 사람들은 다양한 경고신호를 보낸다고 한다.⁷¹⁾ 이러한 경우 가족이나 동료들은 그들의 예고행동에 민간하게 반응하면서 직접적으로 도움을 주어야 한다. 지금 의도하고 있는 것에 대해 터놓고 이야기한다든지, 그의 말을 진솔하게 듣고, 전문상담자와 정신과

69) 오진탁, 「자살해서는 안되는 이유」, 『오늘의 동양사상』 13호, (2005. 9), 314.

70) 오진탁, 『삶, 죽음에게 길을 묻다』, 70. 오진탁은 “사람들은 살다가 극심한 어려움에 부딪치면 자살로써 그 고통에서 벗어나려는 경향이 있는데 죽음은 끝이 아니며 자살하면 고통에서 벗어나는 것이 아니라 더 큰 고통에 빠지게 된다는 점을 주지시킨다면 자살예방의 해결책이 될 수 있다”고 강조하였다.

71) 김광웅, 『현대인과 정신건강』(서울: 숙명여자대학교 출판국, 2005), 166. 첫째, 비음성언어적 경고신호는 사적인 혹은 공적인 가치가 있는 소유물을 가족들이나 주위 친구들에게 나누어 준다거나 알코올이나 약물 사용이 급격히 늘어난다든지, 너무 많이 자거나 전혀 자지 않는다든지, 늘 하던 몸치장을 하지 않는다든지, 친구에게 소홀해지고 관심을 보이지 않는다든지, 늘 즐기던 사회활동을 기피한다든지, 학생의 경우 학교성적이 떨어진다든지, 지겨워하고 불안정하고, 주의집중에 문제가 생기는 경우가 있다. 둘째, 언어적 경고신호는 ‘아무도 나를 돌보지 않는다’, ‘나는 살 가치가 없다’, ‘사람들은 내가 없었으면 한다’, ‘세상인은 모두 잘못 되고 있다’, ‘나는 아무 것도 필요하지 않다’는 말을 주위 사람들에게 자주 하는 경우이다.

의사 등 직접적인 도움을 줄 수 있는 전문가나 기관들을 물색하여 실제적인 도움을 얻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⁷²⁾

미국에서는 일정한 행정구역 단위별로 자살예방센터가 운영되고 있으며, 사회사업가들이 주축이 되어 상담소를 운영하고 있다. 또한 자살예방을 위한 광고문구와 전화번호가 경찰서, 소방서, 구급차요청, 일기예보 같은 번호 밑에 적혀 있어 누구나 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⁷³⁾ 또한 자살 예방 센터들은 24시간 전화 상담 서비스를 제공하며, 사람들이 위기 상담을 받을 수 있도록 방문자 클리닉을 제공하고 있다. 이러한 서비스를 이용한 많은 사람들은 자살에 의지하지 않고 그들의 위기를 극복할 수 있었다고 보고하고 있다.⁷⁴⁾

우리나라에서도 생명의 전화, 사랑의 전화와 같은 몇몇 봉사단체들이 전화상담을 하고 있다. 지역별로 자살예방센터나 지역사회기구를 별도로 마련하거나 지역 보건소에 정신보건전문요원이 상주하여 어려움에 빠진 이들을 실제적으로 도울 수 있도록 해야 한다.

5. 온전한 생명문화의 정립

진정한 생명문화는 생명살림의 문화가 되어야 한다. 한국사회의 높은 자살율을 볼 때 우리 사회는 생명죽임의 문화와 생명살림의 문화 사이의 거센 소용돌이 한가운데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생명죽임의 문화는 건강하지 못한 공동체에서 드러나며 건강하지 못한 문화에 기반을 두고 있다. 건강하지 못한 문화가 개인에게 악영향을 끼쳐 생명의 가치를 소홀히 여기게 만드는 것이다.

72) *Ibid.*, 167.

73) 대한신경정신의학회, 『신경정신과학』, 656.

74) R. J. Kastenbaum, *Death, Society, and Human Experience*, 205.

인간 개인의 자율성을 강조하는 문화는 자신의 생명을 마음대로 결정할 수 있는 자율권을 부여하여 자살을 정당화한다.⁷⁵⁾ 그런데 이러한 인간 중심적인 문화는 생명경시풍조와 직결되어 있다. 따라서 우리는 이러한 인간중심적 문화 안에 내재된 생명경시의 풍조들이 가진 문제점을 분석하면서 생명살림의 비전과 가치를 대안으로 제시해야 한다.

모든 두려움과 죽음의 유혹을 물리치고 생명살림의 문화로 나아가야 한다. 생명의 가치를 경시하고 자신의 생명마저 소홀히 하고 하찮게 여기는 세대에 맞서 생명의 존엄한 가치와 생명 중심적 생명문화를 새롭게 일으키는 것이 중요하다. 온전한 생명문화는 그 구성원들이 정신적, 육체적, 사회적으로 건강한 삶을 영위할 수 있는 환경 속에서 구현된다. 따라서 우리는 생명의 소중함을 인식할 뿐 아니라 삶과 죽음에 대한 올바른 가치관에 기초하여 죽음과 절망을 넘어선 생명살림의 역할을 감당해야 할 것이다.

VI. 나오는 말

자살이 그 사회의 건강도를 측정할 수 있는 척도라고 본다면 우리 사회는 건강하지 못한 사회이다. 또한 자살을 공동체 안의 구성원의 삶을 제대로 돌보지 못한 공동체의 실패로 이해한다면 벼랑 끝에 내몰린 이들의 눈물과 고통을 외면했던 우리의 무관심을 먼저 진지하게 반성해야 할 것이다.

자살은 경제문제를 비롯한 사회의 여러 요인들이 복합적으로 작용해

75) 레온 카스는 건강, 교육, 고용, 사생활, 낙태, 포르노 등에 대한 권리에 대한 주장에서 궁극적으로는 ‘죽을 권리’를 주장하게 되었으며, 이러한 요구는 변화하는 환경과 생명의 끝에 대한 관심으로 연관되어 표면화되었다고 보았다. L. R. Kass, *Life, Liberty and the Defense of Dignity* (San Francisco: Encounter Books, 2002), 201.

발생하기 때문에 사회 전체적인 차원에서 종합적인 노력을 기울여 장기적인 전망에서 해결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다음은 자살예방을 위해 교회 공동체가 현실적으로 해야 할 과제들이다. 먼저, 교회는 올바른 가치관과 세계관의 정립과 더불어 진정한 공동체로서의 연대성의 회복에 힘써야 할 것이다.

둘째, 교회 공동체는 자살한 자의 유족들에게 특별한 관심을 갖고 돌보아야 한다. 유족들 앞에서 자살한 자를 정죄하기 보다는 공동체가 그들을 제대로 돌보지 못한 것을 안타까워하며, 남은 유족들을 위로하고 돌보는데 힘써야 한다.⁷⁶⁾

셋째, 교회 공동체는 교회의 울타리 안에만 머물 것이 아니라 사회의 그늘진 곳, 소외된 곳을 찾아가 따뜻한 관심과 사랑의 배려를 아끼지 않아야 할 것이다. 교회는 교회 안의 신자들뿐만 아니라 교회 공동체 밖의 사람들까지 따뜻한 관심을 갖고 돌보아야 할 책임이 있다. 따라서 교회는 사람들이 자살의 유혹에 빠지지 않도록 구성원들을 돌보는 사랑과 나눔의 공동체가 되어야 한다. 또한 교회는 생계의 위협을 받는 빈곤한 이웃들을 찾아 경제적 재화를 나눔으로써 경제적 빈곤으로 인해 자살충동에 내몰리는 이웃들을 실제적으로 돕고, 그들의 어려움을 함께 나눌 수 있어야 한다. 또한 교회는 이들을 전문적으로 돌볼 수 있는 전문기관이나 사회봉사단체와 연대하여 건강한 사회적 안정망을 구축하는데 앞장서야 한다.

넷째, 교회 공동체는 정작 죽음을 선택하도록 강요하는 부정의한 사회적 구조적 모순을 주목하면서 장기적인 전망에서 사회의 구조적 모순해결을 위해 다각도로 노력하여야 한다. 이러한 현실적인 노력과 함께 진정한 생명문화가 형성된다면 생명살림이의 공동체로 회복될 것이다.

76) 최영태, 「한국사회에서 자살에 대한 기독교윤리적 고찰」, 『신학과실천』 제8권, (2010. 2), 244 참고.

참고문헌

- 강정인. 「정치, 죽음, 진실」. 『한국정치학회보』 36집 3호. 2002년 9월.
- 구인회. 『죽음과 관련된 생명윤리적 문제들』. 서울: 집문당, 2008.
- 김기현. 『자살은 죄인가요?』. 서울: 죠이선교회, 2010.
- 김광웅. 『현대인과 정신건강』. 서울: 숙명여자대학교출판국, 2005.
- 김남시. 「자유죽음론과 장 아메리」. 『자유죽음』. 서울: 산책자, 2010.
- 김별아. 「자살 그 살인의 심리학」. 월간 『말』 96호. 1994년 6월.
- 대한신경정신의학회 편. 『신경정신과학』. 서울: 하나의학사, 1988.
- 문성원. 「자살 사이트의 생성 및 이용」. 한국청소년개발원연구보고서. 2003년 1월.
- 문시영. 「생명윤리교육의 방향설정을 위한 하나의 자성적 제안」. 『생명윤리』 10권 2호. 2009년 12월.
- 박이문. 「자살소감」. 『철학과현실』. 2002년 6월.
- 박형민. 『자살, 차악의 선택』. 서울: 이학사, 2010.
- 서정혁. 「헤겔의 법철학에서의 자살문제」. 『철학』 92집, 2007년 8월.
- 오진탁. 『삶, 죽음에게 길을 묻다』. 안성: 종이겨울, 2010.
- 유호종. 「자살은 정당화될 수 있는가?」. 『철학과현실』 82호, 2009년 9월 가을호.
- 유호종. 『죽음에게 삶을 묻다』. 서울: 사피엔스 21, 2010.
- 이귀행. 「자살의 심리학적 측면」. 『생물치료정신의학』 10권 1호. 2004년 6월.
- 이동익. 『생명의 관리자』. 서울: 가톨릭대학교출판부, 2003.
- 이미숙. 「가족동반자살에 대한 사회심리학적 탐색연구」. 『보건과 사회과학』 20집. 2007년 1월.
- 이상원. 「기독교윤리적 측면에서 본 자살」. 『신학지남』. 2009년 3월.
- 이은봉. 『한국인의 죽음관』. 서울: 서울대학교출판부, 2000.
- 이종원. 「안락사의 윤리적 문제」. 『철학탐구』 21집. 2007년 5월.
- 이종원. 「기독교 생명윤리적 관점에서 본 소극적 안락사」. 『대학과선교』 12집. 2007년 6월.
- 이종원. 「기독교 생명윤리적 관점에서 본 존엄사」. 『기독교사회윤리』 17집. 2009년 6월.
- 최영태. 「한국사회에서 자살에 대한 기독교윤리적 고찰」. 『신학과실천』 8권. 2010

년 2월.

- 황봉환. 「자살문제에 대한 성경 및 신학적 논증과 예방적 대안」. 『신학과실천』 7권. 2009년 4월.
- 황필호. 『데이비드 흄의 철학』. 서울: 철학과현실사, 2003.
- Alvarez, A., 최승자. 『자살의 연구』. 서울: 청하, 1992.
- Amery, Jean. *Hand an sich legen. Diskurs uber den Freitod*. 김희상. 『자유죽음』. 서울: 산책자, 2010.
- Durkheim, Emile, tr. Spaulding, J. A. & Simpson, G. *Suicide*. New York: The Free Press, 1951.
- Dworkin, G. & Frey, R. G. & Bok, Sissela. *Euthanasia and Physician-Assisted Suicide*. Cambridge: Cambridge University Press, 1998.
- Freud, Sigmund, 박찬부. 『쾌락원칙을 넘어서』. 서울: 열린책들, 1997.
- Hauerwas, Stanley. *A Community of Character*, Notre Dame, University of Notre Dame, 1981.
- Hays, R. B. *Moral Vision of the New Testament*, 유승원. 『신약의 윤리적 비전』, 서울: IVP, 2007.
- Kass, L. R. *Life, Liberty and the Defense of Dignity*, San Francisco: Encounter Books, 2002.
- Kastenbaum, R. J. *Death, Society, and Human Experience*, Mass: Allyn & Bacon, 2001.
- May, William E. *Catholic Bioethics and the Gift of Human Life*. Huntington: Our Sunday Visitor, Inc., 2000.
- Murphy, J. M. *Coping with Teen Suicide*. 이해선 · 육성필. 『자살을 꿈꾸는 십대』. 서울: 시그마프레스, 2006.
- Pojman, Louis P. *Life and Death*, Belmont: Wadworth Publishing Company, 2000.
- Rousseau, J. J., 방근. 『사회계약론』. 서울: 신원문화사, 2006.
- Townsend, L. L. *Suicide Pastoral Responses*. 박선규. 『자살-자살에 대한 목회적 대응』. 서울: 순전한나드, 2009.

논문투고일 : 2011. 04. 25

심사개시일 : 2011. 05. 18

게재 확정일 : 2011. 06. 09

• 국 문 초 록 •

한국 사회의 자살률은 OECD국가들 중 1위를 고수하고 있다. 이러한 높은 자살률은 그동안 성장일변도로 거침없이 달려온 한국사회가 안고 있는 고질적인 병폐와 모순을 그대로 드러내고 있다. 이는 한국사회 전반에 걸쳐 생명경시풍조가 만연해 있다는 증거이다.

본 소고에서는 기독교 윤리적인 관점에서 자살의 근본문제와 그 원인을 검토하면서 자살에 대한 올바른 처방과 예방법을 모색하고자 한다. 이와 아울러 한국사회 안에 바람직한 생명문화의 중요성을 강조하면서 올바른 생명문화의 정립을 제안하고자 한다.

자살의 개인적인 원인으로는 충격적인 사건이나 갈등, 희망의 상실과 무력감, 참을 수 없는 고통을 겪거나, 감당할 수 없을 정도의 경제적 궁핍으로 인한 생활고, 입시실패나 가정환경적 요인, 이성문제로 인해 자살을 선택하게 되는 경우도 있다. 자살의 사회구조적 원인으로는 불합리한 사회구조적 모순에서 그 원인을 찾을 수 있다. 이러한 구조적인 모순은 개인으로 하여금 상대적인 박탈감을 심화시키고, 약자와 소수를 배려하는 사회적 안전망이 약화될 때 자살률은 증가한다. 따라서 고실업시대의 자살은 개인적 불행이 넘어 사회 전체의 불행이며, 사회공동체의 실패라고 할 수 있다.

자살은 자신의 생명을 스스로 훼손한다는 점에서 사회적인 손실을 자저다 줄 뿐 아니라 가정 공동체의 해체로 이어지면서 가정에 직접적인 타격을 주게 된다.

자살을 예방하기 위해서는 먼저 생명 존엄성에 기초한 생명존중운동이 전개되어야 하며, 삶의 의미에 대한 긍정적인 동기부여가 선행되어야 한다. 자살예방은 진정한 공동체의 회복에서 공동체의 연대성을 회복하는데 시작되어야 한다. 자살예방교육과 자살 예방시스템 구축되어야 한다. 온전한 생명문화의 정립을 위해 힘써야 할 것이다.

자살예방을 위해 교회 공동체가 할 역할로는 첫째, 교회는 올바른 가치관과 세계관의 정립과 더불어 공동체의 연대성을 회복하는데 앞장서야 하며, 둘째, 교회는 자살한 자의 유족들에게 특별한 관심을 갖고 돌보아야 하며, 셋째, 교회는 사회의 그늘진 곳, 소외된 곳을 찾아가 따뜻한 관심과 사랑의 배려를 아끼지 않아야 할 것이다. 넷째, 교회는 부정의한 사회적 구조적 모순을 주목하면서 장기적인 전망에서 사회의 구조적 모순을 해결하기 위해 다각도로 노력하여야 한다.

주제어 : 자살, 생명경시, 자율성존중, 약행금지 원칙, 자살예방, 연대성, 생명문화